

인도

견조한 실적에도 높아진 거시 부담

- 국제유가 상승과 루피 약세 영향으로 FY27 하반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 인도중앙은행, FY27 성장률 전망 하향 및 물가 전망 상향
- 인도중앙은행·인도 정부, 루피 방어 및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 정책 대응 강화
- 인도 경제의 구조적 성장성을 반영해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나 단기 변동성 지속 예상

금리 동결 속 하반기 긴축 가능성 확대

인도 중앙은행(RBI)은 지난 주말 통화정책위원회(MPC)를 개최하고 정책금리를 5.25%로 동결하는 한편, '중립(Neutral)' 스탠스를 유지하였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결과였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루피화 약세 영향으로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에서는 FY27년(2027년 3월 기준) 하반기 중 인도 중앙은행이 추가로 50~75bp 수준의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유가 부담 반영한 성장률 하향 조정

한편 인도 중앙은행은 높은 에너지 가격 부담을 반영해 FY27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30bp 낮춘 6.6%(YoY)로 제시하였으며,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대비 50bp 상향한 5.1%(YoY)로 조정하였다. 다만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최근 낮아진 시장 컨센서스 대비 여전히 20bp 높은 수준이다.

루피 방어 위한 정책 대응 강화

인도 루피화는 이란 전쟁 이후 달러 대비 5.6% 절하되었으며, 2024년 1월 이후 누적 기준으로는 약 12% 수준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인도 중앙은행과 인도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 달러 유동성 공급, 국영은행 중심의 달러 매도 유도 등을 통해 루피화 방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이번 6월 MPC 회의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를 위한 추가 지원책도 발표하였다. 인도 중앙은행은 공기업과 은행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대 FX 스왑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신규 해외 거주 인도인(NRI) 대상 외화예금에 대해서는 환헤지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인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 관련 이자소득 및 자본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였고,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장기 국채 범위도 확대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외국인 자금의 인도 채권시장 유입을 유도하고, 루피화 약세 압력을 일부 완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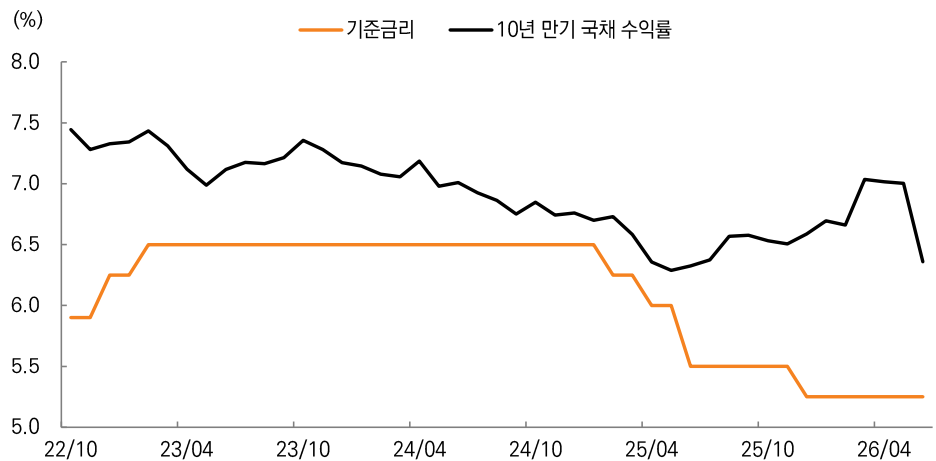
인도: 단기 변동성 확대 구간

인도 중앙은행과 인도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과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를 위한 정책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인도 경제의 구조적인 성장 잠재력과 기업 이익의 견조한 증가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인도의 비중 확대 기초를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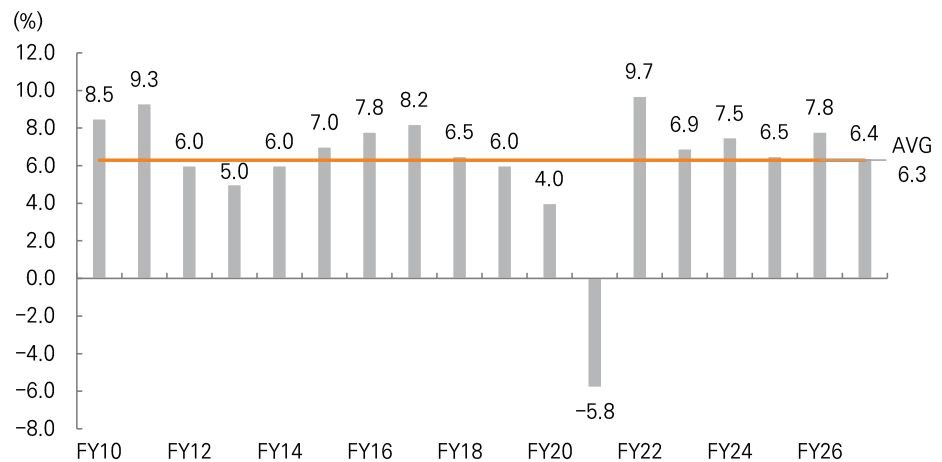
다만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시장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의 FY4Q26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개별 종목 중심의 차별화 흐름은 나타나고 있으나, 지수 전반의 방향성을 바꿀 만한 강한 모멘텀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도 증시는 당분간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림 1. 기준금리와 10년물 국채 수익률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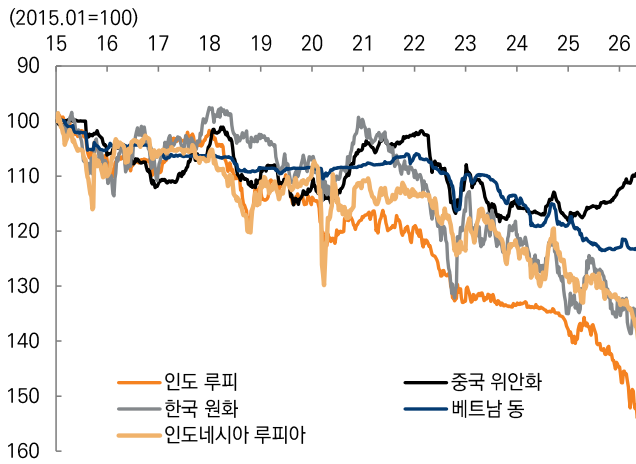
그림 2. 인도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주: 2027년은 시장 컨센서스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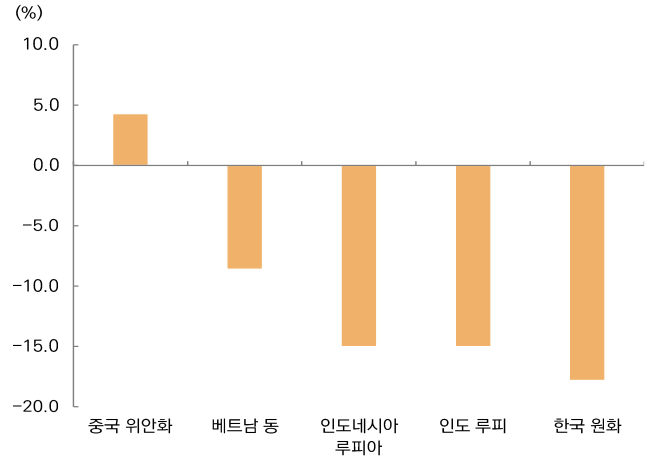
자료: MOSPI(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RBI,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주요 신흥국 환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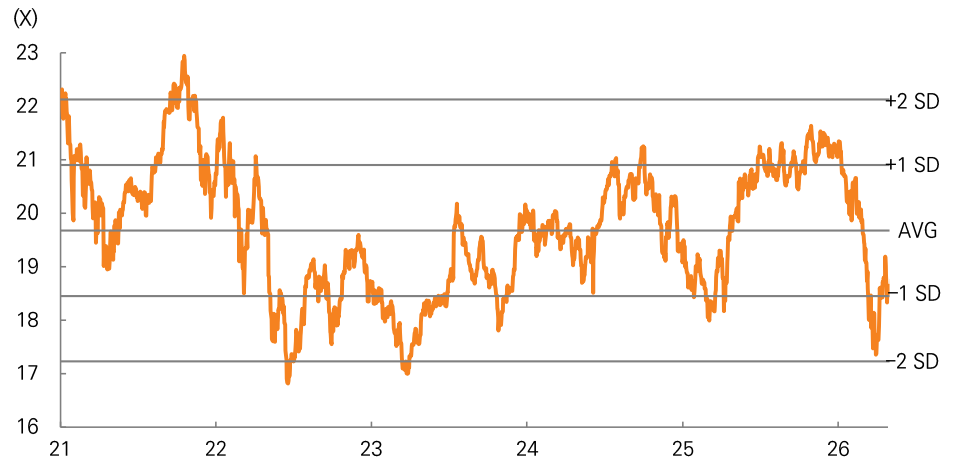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달러 대비 아시아 신흥국 통화 절하율 비교(24년 1월 기준)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Nifty 50 P/E 밴드 차트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